光州日報

단기 4342년 (음력 10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34호 1판 2009년 11월27일 금요일

민주 경선, 호남선 불붙었다

광주시장·전남지사 조기경선 방침

내달께 룰 확정…내년 2~3월 실시

입지자들 캠프 구성·가동 등 분주

민주당이 이르면 내달 중에 지방선거 경선 방식을 정하고 내년 2~3월에는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선거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그동안 정중동의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입지자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 가동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방식에 대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께 경선 방식을 가닥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 1월 외부인사 영입, 뉴 민주당 선언, 일괄 복당 등을 포함한 당내 화합책과 함께 연계해서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경선 방식은 기존의 '국민 여론조사 경선(50%)+ 당원 여론조사 경선(50%)'이며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 경선 비중을 20% 이상 높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에 참여시키는 한편, 공심위에서 후보를 압축시키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을 내년 2~3월에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 후보 결정 등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보다 늦게 치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호남을 기점으로 광역단체장 경선을 시작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경선을 차례로 실시, 전국적인 흥행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광주를 방문한 정세균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도권에서 여권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때 민주당 후보가 가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호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먼저 경선을 치러 공천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 구성 및 가동을 통해 지지 세력 확장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장, 양형일 전 의원과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출마를 알렸으며,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또 강운태·이용섭 의원 등도 당초 내년 설을 전후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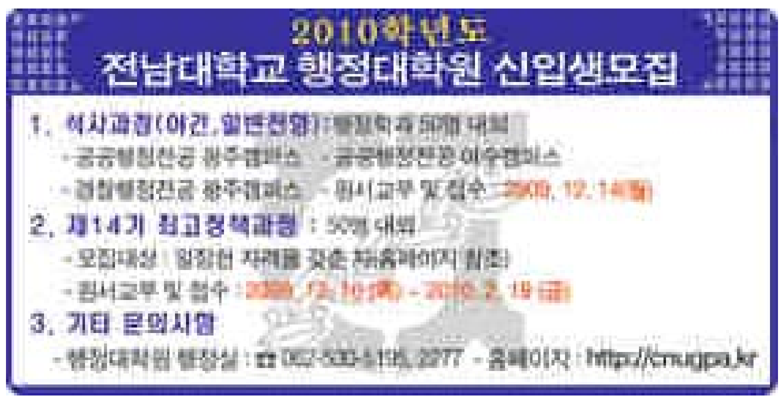
주승용 의원도 조만간 전남도당 위원장직 사퇴와 함께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이낙연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지역 광역단체장 경선은 늦어도 내년 3월 중순, 기초단체장 경선은 4월 중순까지 치러질 것이다"며 "전략공천보다는 경선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인들 "일하고 싶다" 2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 노인일자리박람회' 행사장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광주시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모두 110개 업체가 참여해 노인 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착공 17년만에

다음달 17일 완전 개통

광주 제2순환도로가 착공 17년 만에 완전 개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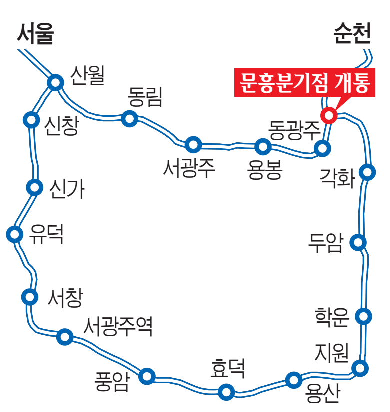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문흥 분기점(JCT)이 내달 17일 개통됨으로써 광주 제2순환도로 전 구간 37.66㎞가 연결된다. 지난 1992년 10월 제2순환도로 착공 이후 17년 만이다.

문흥분기점 개통으로 제2순환도로를 통해 대전과 순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광주 나들목을 통해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이 문흥분기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동광주 나들목 부근 도로 차량 지·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다소 늘어 통행량 저조로 인한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적자 보전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2 순환도로 노선도



이번 문흥 분기점 개통에 따라 기존 동광주 나들목의 순천 방향 진·출입 노선은 다음달 17일 폐쇄된다. 다만, 대전에서 동광주 나들목으로 진입하는 노선은 당분간 유지된다.

2순환 도로 이용 차량은 순천 방향으로 가려면 동광주 IC로 진입하지 않고 곧바로 문흥분기점을 이용하면 된다. 도심 운행차량은 문화 4거리를 지나 담양 도동 고개에서 P턴해 문흥분기점을 거쳐 대전, 순천방향으로 가면된다.

시는 동광주 나들목에서 대전 방향 진출 노선을 당장 폐쇄할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설 연휴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중이다.

한편, 제2순환도로는 6차선으로 시비 6천523억원과 민자 4천707억원 등 총 1조1천230억원이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문흥분기점 개통 이후 동광주 나들목 대전 방향 진입 램프 설치공사와 문흥-보촌 도로확장공사로 내년 초까지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나들목 주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될 수 있으면 용봉 나들목과 서광주 나들목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외고 대폭 축소 또는 폐지

일반고 영어· 수학 무학년제… 내달 1 0 일 확정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존속하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 학생수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반고도 졸업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영어·수학은 무학년제와 교과교실제를 도입해 10~15단계를 정해 목표 수준을 넘어야 다음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박부권 동국대 교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인의 탁월성 교육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 시안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와 교육감협의회, 교장단 간담회 등을 거쳐 내달 10일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외고의 경우 2012년까지 존속부터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으로의 전환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1안)과, 외고를 없애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계고 등의 외국어 중점학교로 전환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7 년만에 뒤집어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